

12/3/23

설교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골로새서 1 장 15-23 절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 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절관주** 히 1:3

(골 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 1: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 1: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 1: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상들에 대해 반박하기 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이단 사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웅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인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딤후 6: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신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 14: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 14: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알고 경험하여 깨달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외적 이미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곧 피조물과는 차별된 존재인 창조주시라고 합니다.

(골 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 1: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창 1: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 천지 창조때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가 피조물인 만물보다 먼저 계셨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선재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탁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에서 '함께 섰느니라'는 '붙들고 있다'는 뜻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등등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경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되심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고백하며 만물의 으뜸이라고 합니다.

(골 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머리'나 '으뜸'이란 '첫째' '가장 중요한 위치' '결정권을 가진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움직이는 결정권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에서 '근본'은 '시작' '처음'이라는 뜻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두 위격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 1: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예수님을 선포함으로써 인간이 구원을 위해 복음이외에 어떤 행위도 더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준수할 필요도 없고, 금욕을 할 필요도 없으며, 천사를 숭배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유대 사상,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 영지주의 모체가 된 초기 영지주의 사상, 거짓 그리스도 사상 등이 침투해 있어 복음에 반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인간을 포함해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당신과 원수된 당신이 지으신 인간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죄인인 인간을 위해 속죄 사역을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골 1: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 1: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된 우리 성도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에 흔들리는 교인들을 향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골 1: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모두 이단 사상,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신 탁월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이단 사상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기에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 준수, 금욕, 천사 숭배, 사람의 지혜, 그 어떤 것들도 필요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탁월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